

군산항, 예타대상사업 '선정'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사업... 군산항의 생명

군산시는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사업이 정부(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사업은 군산항 서측에 국비 4,287억원을 들여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투기장 21.5만㎡(65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180만㎡의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의 특성상 토사 퇴적에 따른 적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사업은 군산항의 생명과 같다.

군산항 준설도 투기장 조성이 지연

될 경우 항로 준설공사에 차질이 생겨 항만 경쟁력의 퇴보는 물론 자칫 국가 무역항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을 중심으로 전북도, 군산시, 지역정치권 등이 군산항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정부(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시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지속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유로 선정이 되지 않아 항만관계자와 업계 등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군산항 준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준설토를 새만금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하여 왔으나 토질문제(미세점토), 준설도 활용의 경제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매립토 활용이 어려워졌다.

또한 해상매립지인 금강도를 3차 증고한에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수토 능력에 한계로 신규 준설도 투기장 조성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제2투기장 조성사업의 시작일 뿐"이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현봉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가운데)이 대야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마을 어른께 듣는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로 6학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국 소년체육대회 3위 우승한 탁구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 어른께 듣는 옛날 이야기'

강임준 군산시장, 대야초교 방문 특강

강임준 군산시장(가운데)이 대야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마을 어른께 듣는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로 6학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국 소년체육대회 3위 우승한 탁구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간은 지난 3일 대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대야 인물탐구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강 시장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이 궁금한 점은 대야와 대야초등학교의 의미, 과거 대야 마을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현재 이야기로 강 시장의 어린시절 이야기와 학령전환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독서,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8월 열린 대통령배 겸 전국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탁구부원을 만나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대야초 탁구부는 최근 성적이 주춤했지만 학교와 동창회의 지원 등으로 다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강 시장은 학생들에게 "대어라는 소중한 공간을 매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중학교를 진학하기 시기에 자신과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한현봉 기자

익산시 · 전북에너지, 수소 생태계 인프라 구축 '맞손'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강화

익산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주)와 협력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4일 전북에너지서비스와 업무협약을 갖고 친환경 수소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이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 등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 친환경 수소생태계 구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을 포함한 관용차량과 관내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에 관한 인·허가 간소화, 규제 개선 등 수소 인프라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익산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역화수소충전소 설치와 동시에 충전소 부지 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기로 했다.

수소에너지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들과 접점을 늘려나기 위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 아톤산업, 요소수 지역 우선 공급 협약

익산시가 요소수 부족사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역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유)아톤산업과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풀기 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요소수가 필수적인 산업 분야인 화물연대 익산지회, 건설기계 익산지회, 건설산업 화물운수 익산지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유)아톤산업은 제조하

는 요소수를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전남·북에서 유일하게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00t 가량을 제조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산업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요소수 재고 확보와 공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운수업체나 요



소수와 연관된 업체들은 충분히 트이게 됐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내년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시행

군산시는 농촌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2년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팩터를 대상으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와 콤팩터로 농협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농기계다.

시는 현재 2,095대의 트랙터와 콤팩터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으며 전국 시군 농기계 보유량의 비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폐차 지원금 사업비 2억2천8백만원이 책정됐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2022년 1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 또는 사업 신청량이 많을 경우 평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사전에 지정된 관내 폐차업소(농기계사후관리 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하고,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제조년도와 규격 등에 따른 보조금을 트랙터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249만 원까지 콤팩터는 100만원부터 1,3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기계의 정상작동이 확인되어야 하고,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이상 보유했던 농기계에 한하며 용자 상환액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사랑의 연탄 나눔 1만8000장 기부

군산시는 (사)따뜻한군산 사랑의연탄 나눔운동(대표이사 오종숙)이 때 이른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연탄 1만8,000장(1,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사에 참석한 오종숙 대표이사는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따뜻한군산 사랑의연탄 나눔운동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품종특성유지 기반조성 추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22년부터 농업인들이 식량작물 종자를 2년에 1주기로 갱신할 수 있도록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품종이 개발돼 농가에 보급되면 재배하는 동안에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원인에 의해 품종이 퇴화하고 특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자가 체중비율이 높을수록 품종의 고유 특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자가 체중한 종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품종의 퇴화로 이어진다.

품종이 퇴화될수록 유전적 순도가 감소하게 되며 각종 병해충에 취약해져 작물의 생산성 및 미질이 저하되고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반드시 2년 1주기로 종자를 갱신해 품종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순도높은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농업인들이 자율교환을 통해 우량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